

##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검증

장 희 숙

(성공회대학교)

김 예 성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요 약]

본 연구는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의 217명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Holtzworth-Munroe와 Stuart가 제안한 세 하위유형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세 유형분류는 타당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행위자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 수준이 가장 낮고,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으며, 알코올에 덜 의존하는 생활패턴을 보인다. 성격기질 측면에서도 특징이 없는 편이며, 모든 MCMI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형1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비교적 양호한 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며 이러한 폭력은 아내에게만 행해지고 있었다. 유형2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성, 경계선성, 회피성, 수동공격성을 기록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도는 유형1과 비슷하나 질투심, 자존감, 태도 변인들은 유형3과 근사한 수치를 보인다. 이들은 특히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고 아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장 많고, 알코올 남용이 심하며, 통제력이 낮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면서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행위자 유형별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가정폭력, 행위자, 유형, 군집분석

## 1. 서론

가정폭력 발생과 재발을 줄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는 피해자뿐 아니라 폭력의 주체인 행위자에게도 전문적인 개입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행위자의 폭력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회개입의 범위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중심의 서비스로부터 행위자의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장구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미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행위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들의 특성을 밝히려는 작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e.g., Hotaling and Sugarman, 1986). 한국에서는 1998년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위자들과의 접촉이 보다 용이해졌고, 그들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정보를 통해 행위자 관련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e.g., 장희숙 외, 2003). 문헌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의 공통적 특성은 배경, 정서, 태도, 사회, 기술, 성격요인으로 요약된다. 대표적 특성들은 아동기 학대경험(김재엽, 1998; Gelles, 1993), 알코올 남용(김갑숙, 1991; Tolman and Bennett, 1990), 질투심(Saunders, 1984; Walker, 1981), 분노(장희숙 외, 2003; Maiuro et al., 1988), 자존감(Goldstein and Rosenbaum, 1985; Gondolf, 1985),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윤경자·최규련, 1999; Martin, 1986; Saunders, 1987), 스트레스(Straus and Gelles, 1990), 주장/갈등해결기술(Maiuro et al., 1986; Margolin et al., 1989), 성격특질(Hamberger and Hastings, 1988) 등이다.

행위자 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폭력행동을 유발시키는 개인내적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개입방법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하지만 특성연구들은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장배경, 기질, 심리상태, 폭력의 정도나 형태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에서 행위자들 간에 서로 다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문헌에서는 행위자들이 단일그룹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e.g., Hamberger and Hastings, 1986).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이해가 서로 엇갈리고 덜 선명한 이유도 한 편으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행위자들의 이질성을 간과한 상태에서 폭력과 비폭력 집단을 구별한다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된다. 성격이 다른 행위자들이 한 집단의 평균 점수로 환산되어 결과적으로 비폭력 집단과의 차별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과 그들의 폭력행동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유형분류는 이론과 실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유형분석은 가정폭력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컨대, 폭력을 사용하는 여러 원인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특성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가정폭력 이론들이 행위자들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여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면, 행위자 유형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이론들이 수립되고 행위자 특성에 따라 여러 이론들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 유형연구는 또한 클라이언트 특성에 맞는 적합한 개입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한다. 현재 행위자 상담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모든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행위자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개입방법을 모색하고 각 행위자 유형이 필요로 하는 상담전략을 수립할 경우 개입의 효율성이 보다 증대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 및 실천적 함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행위자 유형화에 대한 작업은 국내에서 아직 실시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전국의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결점을 보완하고자 고유한 세부목적을 갖고 설계되었다. 기존의 유형분류 연구들은 이론적 접근이 약하다는 단점을 나타낸다. 그로 말미암아 유형을 분류하는 변인들을 선택하거나 연구결과, 혹은 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정당하고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Holtzworth-Munroe와 Stuart(1994)가 수립한 행위자 유형에 관한 이론에 입각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동시에 그들이 제안한 하위유형들이 한국의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자료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행동, 정서, 태도, 기술,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들 대부분이 표준화된 도구에 의해 측정되어서 이론에 따른 행위자 유형을 찾아내고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태도를 고려하고 있어서 가해남성들이 스스로 보고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Holtzworth-Munroe와 Stuart(1994)가 제안한 유형화 모델은 타당한가? 셋째, 각 행위자 유형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서로 어떻게 다른가?

## 2. 이론적 논의

### 1) 선행연구 검토

가정폭력 행위자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국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Faulk(1974)는 체포된 23명 폭력남편들을 인터뷰한 후 다섯 형태의 행위자 유형을 제시하였다. 지속적/감정적(stable/affectionate) 행위자들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우울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의존적/수동적(dependent/passive) 행위자들은 아내가 어떤 촉발적인 행동을 할 때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의존적이고 의심이 많은(dependent/suspicious) 유형은 질투심이 강하고 아내에게 의존적이며, 아내를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지배적(dominating) 행위자들은 주로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폭력을 사용한다. 폭력적/괴롭힘(violent/bullying) 집단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

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류방법의 임상적 기준도 보고하지 않고 있어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낮은 편이다.

Elbow의 연구(1977)는 네 가지 유형을 보고하고 있다. 통제형(controller) 남성들은 아내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고 아내를 하나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때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방어형(defender)은 아내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강하다는 느낌을 받으려 한다. 따라서 아내가 독립적이 되거나 자신을 떠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승인추구형(approval seeker)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자기 이미지에 대해 도전받거나 도전을 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혼합형(incorporation)은 아내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면서 아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남성들로서, 폭력의 강도가 가장 높고, 약물중독, 자녀학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잦다.

Caesar(1986)는 MMPI를 통해 상담을 받고 있는 26명 행위자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폭군형(tyrant)은 정신병리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협박과 학대를 통해 아내를 통제하며 자신의 폭력에 대해 별다른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둘째, 노출된 구조자형(exposed rescuer)은 만성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을 심하게 남용하고 아내가 자신에게 의존하기를 바란다. 셋째, 노출되지 않은 이타주의형(unexposed altruist)은 주장성이 낮고 분노를 감추며 아내의 기분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집단으로 의존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자신의 폭력행동을 더 부인하고 최소화하며 방어적이다. Caesar(1986)의 연구는 발달요인과 아내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폭력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정보를 제공했으나 표본의 크기가 작고 편중되어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행위자프로그램에 참여한 99명 남성들이 보고한 MCMI 점수에 기초하여 Hamberger와 Hastings(1986)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세 가지 성격요인을 발견하였다. 수동-의존/강박적(passive-dependent/compulsive) 집단은 자존감이 낮고,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그들은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적대감과 공격성을 나타낸다. 경계선/정신분열성(borderline/schizoid) 유형은 사소한 다툼에도 폭력적으로 과잉반응하며,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고 알코올 문제를 보인다. 자기에/반사회성(narcissistic/antisocial)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극도의 자기중심적 집단이다. 이 집단은 자신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행위자들이 이 세 가지 성격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ondolf(1988)는 쉼터 거주 여성 525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세 유형으로 행위자들을 구분하였다. 사회병질적(sociopathic) 집단은 가장 심한 상해를 입히는 유형이며, 가정 밖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 약물, 절도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다. 반사회적(antisocial) 집단은 신체적, 언어적으로 심한 학대를 행하지만 법적경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형적(typical) 집단은 언어, 신체, 성적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고, 범죄로 인해 구속되는 일이 적

으며, 폭력 후 부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심층 인터뷰를 도입한 Shields, McCall과 Hanneke의 연구(1988)는 85명 표본을 가족들에게만 폭력적인 남성(family-only violent men), 타인에게만 폭력적인 남성(non-family violent men), 가족과 타인 모두에게 폭력적인 남성(generally violent men)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집단은 범죄경력이 적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폭력의 정도가 낮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가족과 타인에게 모두 폭력적인 집단이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하고 보다 범죄적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적대감 척도를 중심으로 하여 Hershorn과 Rosenbaum(1991)은 41명 행위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과잉통제(over-control) 집단은 평소에 분노를 잘 표현하지 않다가 폭발할 경우 매우 심한 폭력을 행사한다. 반면에 통제력이 낮은(under-control) 집단은 경미한 폭력을 자주 사용하며, 부부관계 이외의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한다.

Saunders(1992)는 다양한 행동 및 태도 변인들을 사용하여 182명 남성들에게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군집은 가족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family only) 유형이다. 이들은 폭력의 정도가 가장 낮고, 심리적 학대, 정신병리, 분노, 우울, 질투의 수준이 낮으며, 여성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고, 아내 외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폭발하기 쉬운(emotionally volatile) 유형으로, 신체적 폭력 정도는 중간이나 심리적 학대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분노, 우울, 질투심이 높으며,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고, 자살 충동을 자주 일으킨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generally violent) 남성들이다. 이들은 가정 내·외부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아동기에 심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고, 알코올 남용, 폭력으로 인한 구속경험이 많다. 부부갈등, 분노와 우울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폭력의 심각성이 가장 높다.

Hamberger, Lohr, Bonge와 Tolin(1996)은 행위자 833명을 대상으로 세 개의 군집을 밝혀냈다. 비병리적(non-pathological) 집단은 폭력, 분노, 물질남용의 수준이 낮으며,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아동학대 경험, 범법행위의 가능성이 가장 낮다. 수동-공격 의존적(passive-aggressive dependent) 집단은 우울 수준이 높고,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많았다. 반사회적(antisocial) 집단은 범죄경력이 가장 많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Jacobson과 Gottman(1998)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두 개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가정 밖에서도 폭력적이며 반사회적인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코브라(Cobra)라고 명명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아내에게 과잉의존을 보이는 행위자로 투견(pitbull)이라는 명칭을 붙여 설명하고 있다.

다섯 개 군집변인들을 활용하여 Tweed와 Dutton(1998)은 79명 행위자 남성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도구적(instrumental) 집단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고 반사회적 성향을 나타낸다. 충동적(impulsive) 집단은 경계선적 성격특질과 다양한 정신병리를 지니면서 아내에 대한 애착불안을 보이고 있었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론이 부족하고 연구들마다 서로 다른 군집변인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알려주는 정보가 산발적이고 일관성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구분되는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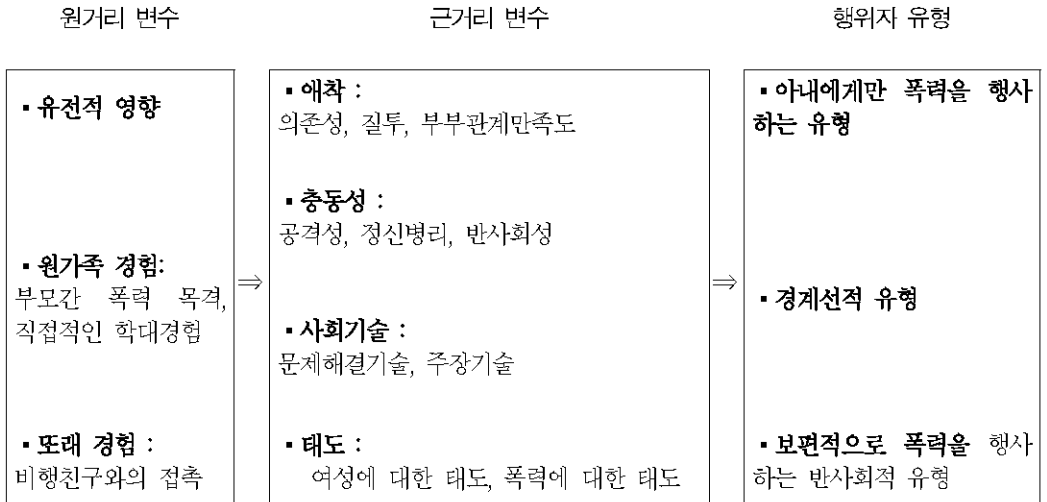
유형은 다음 두 개로 요약된다. 첫째는 가족/아내에게만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과 가족/아내와 타인 모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의 대조이다. 후자에 속하는 행위자들이 아동기 학대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더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 문제와 지배적인 남성 이미지를 더 강하게 보이고 있다. 둘째는 의존형 집단과 지배형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적 유형의 남성들은 의존적 유형에 비해 더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패턴을 종합해서 Holtzworth-Munroe와 Stuart(1994)는 아내에게만 폭력을 사용하는 유형, 의존성이 강한 경계선적 유형, 보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반사회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분류에 그치지 않고 저자들은 행위자 유형에 따라 아내 폭력을 달리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가정폭력 행위자 유형에 대한 저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 2) 행위자 유형에 대한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이론적 모델

유형연구들을 바탕으로 Holtzworth-Munroe와 Stuart(1994)는 행위자 유형에 대한 발달모델을 제시하고, 각 유형에 따라 폭력발생 원인과 위험요인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개인 내적 변수들을 원거리(distal)와 근거리(proximal)로 구분하였다. 원거리 변수는 폭력행동을 초래하는 배경적 요인들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충동성, 공격성, 까다로운 기질과 같은 유전적 성향,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학대받은 경험과 같은 원가족 경험,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또래경험이다. 유전적 기질은 성격이론(e.g., Gray et al., 1983)과 범죄학 연구들(e.g., Dilalla and Gottesman, 1989)에서 유추했으나, 가정폭력 분야에서 경험적 자료에 의해 검증된 바는 아직 없다.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사회학습과 애착 이론을 들 수 있다. 또래경험은 사회상호작용 모델,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이론들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요인이다.

근거리 변수는 폭력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거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저자들은 애착, 충동성, 사회기술, 태도 요인을 근거리 변수로 선택하였다. 첫째, 애착은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갖게 되는 타인에 대한 의존과 공감 정도를 의미한다.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애착관계를 경험한 남성들은 아내에 대해 병리적 수준의 의존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며,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 애착관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는 부부관계만족도, 의존성, 질투심이 있다. 둘째, 충동성은 유전적, 생물학적 기반을 둔 성격측면으로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성격과 연관지을 수 있다. 충동 성향이 강한 이들은 처벌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반응을 통제하지 못하며, 갈등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분노를 나타낸다. 아내폭력 문헌에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되는 변수는 범죄경력, 분노, 통제력, 반사회적 성향, 알코올 및 약물남용 등이다. 셋째, 사회기술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학습된 행동으로 폭력행동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연구들(e.g., Caesar, 1986, Holtzworth-Munroe, 1992)은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부부 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기술이 결핍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관련 변수들은 비폭력적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주장, 관계 기술을 포함한다. 넷째,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예측변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이다. 이 역시 가정, 또래집단, 사회 등에서 학습된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특히 아내폭력과 관련된 태도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 폭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다. 아내를 지배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가 폭력 사용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주로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폭력에 대한 합리화/정당화, 성역할 태도,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이다.



<그림 1> 아내폭력 발달모델과 세 행위자 유형

앞에서 설명한 원거리와 근거리 변수들에 근거하여 Holtzworth-Munroe와 Stuart(1994)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은 아동기 학대경험이나 관계기술의 부족과 같은 위험요인의 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이들의 폭력성은 개인 또는 부부 관계에서의 스트레스와 특정 위험요인이 결합한 결과이며, 부부갈등이 상승할 때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은 충동성이나 불완전 애착 등으로 인한 정신병리 문제가 비교적 적고, 여성에 대한 태도와 폭력에 대한 태도가 온건하며, 분노의 수준은 낮은 편이고, 폭력을 행한 뒤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경계선적 유형은 아내에게 심리 및 성적학대를 자주 행하고, 우울 성향이 강하며, 알코올을 남용한다. 무엇보다도 경계선적 성격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즉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거부에 의해 배우자와 친밀하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매우 의존적이고 버려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강한 질투심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은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고 이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사소한 분쟁에서도 과잉반응하면서 폭발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자들은 관계기술이 부족하고, 여성을 적대시하며 폭력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보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반사회성 유형은 아내 또는 아내 외의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며, 심리적, 성적, 신체적 폭력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범죄 행위 가능성 또한 높다. 이들은 아동기에 빈번하고 심한 학대를 당했으며, 비행또래와의 접촉이 높고,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한다.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충동성이 높아 분노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악물남용과 범죄적 문제가 많다는 특성은 반사회적 성격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기술이 결핍되어 있으며,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폭력의 허용도가 매우 높다.

각 유형에 따라 발달모델의 변수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이론에 따른 세 행위자 유형의 특성

변수	행위자 하위유형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	경계선적 유형	보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반사회적 유형
유전적 영향	낮음	중간	높음
원거리			
원가족 경험			
부모간 폭력 목격	낮음-중간	중간	중간-높음
아동학대/거부	낮음-중간	중간-높음	높음
비행또래와의 접촉	낮음	낮음-중간	높음
근거리			
애착	안정-불안정	불안정	단절
의존	중간	높음	낮음
공감	중간	낮음-중간	낮음
충동성	낮음-중간	중간	높음
사회기술			
부부관계	낮음-중간	낮음	낮음
부부관계 외	중간-높음	중간	낮음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	없음	중간-높음	높음
폭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낮음	중간	높음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와 절차

조사대상자는 2003년 5-9월 동안 보호처분을 받고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의뢰된 폭력남편들이다. 본 연구는 상담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남성 행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피하고자 가정폭력 행위자와 접촉하는 전국의 사회서비스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를 담당하는 기관은 30개 보호관찰소와 28개 상담위탁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58개 기관들의 협조를 얻은 후,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해당 기관의 상담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이후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00여명 행위자들 가운데



데 MCMI 점수에서 타당성이 의심되거나 결측값이 있는 사례들을 제외하여 총 217명이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이다.

## 2) 조사도구

### (1) 신체적 폭력 및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갈등해결기술은 Straus가 1979년 개발하고 1996년에 수정·보완한 CTS2(Conflict Tactic Scale 2)를 사용해서 측정되었다. CTS2는 기존의 CTS에 비해 보다 다양한 폭력행동을 포함시키고, 응답 왜곡 가능성을 줄이도록 수정되었다. 행위자들은 총 12개 신체적 폭력과 8개 심리적 폭력 항목에 ‘없음’에서 ‘일년에 20번 이상까지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CTS의 내부신뢰도  $\alpha$ 계수는 .77에서 .88(Straus and Gelles, 1990)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각각 .90과 .89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 (2) 성격특성

행위자의 성격특성은 Millon(1983)이 개발한 다축임상 성격질문지(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CMI)를 활용해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내담자의 성격, 정서적 적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임상적 증상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격기능과 장애에 이르기까지 성격 관련 특질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다. MCMI는 성격기질들의 차이를 명백하게 구별해냄으로써 성격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1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아니오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채점 과정에서 원 자료는 성격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BR(base rate)점수로 환산된다. BR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병리적 성격장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는 8개 임상적 성격유형과 3개 성격병리 하위척도들을 주로 사용했으며, 유용하지 않은 하위척도들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자료의  $\alpha$ 계수는 .96을 기록한다.

### (3) 폭력 대상 범위

응답자들은 폭력의 대상 범위에 따라 두 개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아내폭력 집단”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들을 말하며, “일반적 폭력 집단”은 아내 뿐 아니라 부모, 친척, 형제자매, 친구, 낯선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행위자들을 일컫는다.

### (4) 우울

행위자의 심리적 우울 상태는 Beck 등이 1961년에 제작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해서 측정되었다. BDI는 우울증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상적 우울 증상을 토대로 고안된 검사이다. 원 척도는 정서, 인지, 동기, 생리적 증후군 등 21영역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관주의, 불만족, 죄의식, 자살의 상상, 초조감, 왜곡된 신체이미지, 일의 금지 영역을 선택

하여 7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상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Beck 등(1978)의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및 양분상관계수는 .65-.67이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alpha$ 값은 .80이다.

#### (5) 통제력

본 연구는 행위자들의 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섯 개 항목을 만들어 질문하였다. 질문내용은 “나는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 의지로 나의 즉각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가끔은 지나치게 먹거나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할 때가 있다”, “나는 내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이다. 응답자는 ‘매우 동의함’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음’까지 7점 리커트 척도에 자신이 해당하는 바를 선택하게 된다.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 (6) 질투심

행위자의 질투심 정도는 White(1977)가 개발한 질투심 척도(Jealousy Scale)를 사용해서 측정되었다. 질투심 척도는 7단계 리커트 양식으로 응답하게 되며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질투심이 강함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신뢰도  $\alpha$ 값은 .85이다.

#### (7)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1962년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R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거트만 척도로 다양한 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Rosenberg(1985)는 .92의 reproducibility 계수와 .72 scaleability 계수를 보고했다. 본 자료의  $\alpha$ 계수는 .78이다.

#### (8) 알코올 의존도

응답자의 알코올 의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시건 알코올리즘 선별검사(Michigan Alcohol Screening Test, MAST)를 사용하였다. 본래 이 척도는 1971년 Selzer에 의해 개발된 25문항 척도로 문체성 음주의 결과와 음주에 대한 대상자 자신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kornye 등(1972)에 의해 10문항으로 수정된 Brief MAST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전체 10문항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예”로 응답한 수를 합산하여 알코올 의존 정도를 계산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의존이 심함을 말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4이다.

#### (9) 성역할 태도

행위자의 성역할 태도는 Osmond와 Martin(1975)이 개발한 Sex Role Attitude(SRA)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  $\alpha$ 값은 .69로 나타났다.

#### (10)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는 Saunders 등(1987)이 제작한 The 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IBWB)을 활용해서 측정되었다. 원 척도 31문항에서 12개 문항으로 수정된 척도를 사용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내부신뢰도는 .77- .88 (Saunders et al., 1987)이다. 본 자료의  $\alpha$ 값은 .79이다.

#### (11) 문제해결기술

행위자의 문제해결기술을 사정하기 위해 Heppner와 Petersen이 1982년에 제작한 Problem Solving Inventory(PSI)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 척도는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문제에 대한 접근-회피 스타일, 개인적 통제라는 세 가지 범주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적 인식을 측정하게 된다. 원 척도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개 하위범주를 포함하는 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PSI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  $\alpha$ 는 .72- .85의 범위를 보이고 전체 척도  $\alpha$ 값은 .90이다(Heppner and Petersen, 1982). 본 자료의  $\alpha$ 값은 .66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 (12) 주장기술

주장기술은 Rathus(1973)가 개발한 주장척도를 활용해서 측정되었다. 사회적 상황을 표현해주는 각 문항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얼마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지 응답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대담성을 측정하고 있다. 총 12개 문항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반분신뢰도 .78, 8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78을 나타내고 있다.

#### (13)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측정은 Roach 등(1981)이 개발한 관계척도(Relationship Inventory)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73문항으로 구성된 원 척도를 Bowden(1977)이 48개의 문항으로 단축시켰으며, 본 연구에서는 1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  $\alpha$ 값은 .95로 높은 내적 타당도 및 일치도를 지니며,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  $\alpha$ 값은 .89이다.

#### (14) 아동기 학대경험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을 말한다. 응답자들은 4개 문항(밀쳐서 벽에 부딪힘, 물건에 맞음, 발에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음,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음)에서 “전혀 없음”에서 “거의 매일”까지의 6점 방식으로 응답했으며 이들을 모두 합한 값을 분석에서 사용했다. 본 자료의 신뢰도는 .84를 기록한다.

### (15)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반응

행위자의 테스트 받는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Crowne and Marlowe, 1964, SDRB)의 수정본인 Personal Reaction Inventory(Greenwald and Satow, 1970, PRI)를 사용했다. PRI는 7점 리커트 척도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DRB와 동일한 내적 신뢰도를 보여준다(Saunders 1991). 본 연구는 PRI 점수를 활용하여 행위자의 행동, 감정, 태도 관련 수치들을 통계적으로 조정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행위자의 유형분류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행하였다. 군집분석은 행위자들을 유형화하는데 적합한 통계기법이다. 군집변인들은 Holtzworth-Munroe와 Stuart 이론에 따라 세 개 행위자 유형을 차별화하는 핵심요인들(폭력의 정도, 폭력 대상 범위, 정신병리)로 구성되었다. 군집분석에 포함된 6개 변인은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폭력 대상 범위(아내폭력 집단 vs. 일반적 폭력집단), 그리고 정신병리군에 속하는 반사회성, 경계선성, 의존성이다.

본 연구는 먼저 Ward's 방법을 활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시도하여 군집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덴드로그램은 2개 또는 3개 군집화 결과를 가장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군집수를 지정해서 K-means 분석을 시도하고, 이어 최근에 개발된 Two-step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와 Two-step 분석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별도로 고려하고, 계층과 비계층적 군집화의 장점을 살린 Two-step 방법을 최종 통계기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에 따라 세 개로 분류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와 Two-step 분석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속형과 범주형 군집변수를 가진 본 자료의 거리 측정은 Log-likelihood에 의해 산출되었다. 행위자 유형을 분류한 후에 각 군집변인이 하위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체표본과 세분화된 행위자 유형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군집분석에서 생산한 행위자 하위유형들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고, Holtzworth-Munroe와 Stuart(1994)의 가설을 확인하고자 18개 외적변인들을 중심으로 ANOVA 분석과 Post Hoc Games-Howell Test를 실행하였다. 변량의 비동일성을 전체로 하는 Games-Howell Test는 본 자료에서 형성된 군집들의 다중비교를 위해 적합한 분석기법이다.

행위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여부는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의 가장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행위자의 테스트 받는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반응(PRI)을 측정하였다.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태도 및 정서 변인들의 반응편차를 줄이기 위해 PRI 점수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점수 산출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한 MCMI 점수를 제외하고, 이 연구에 포함된 모든 연속변수들은 PRI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에서 조정되었다(참조: Saunders, 1991). 이 기법은 표본의 크기를 축소시키지 않으며, 분석 방법이나 조사도구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 4. 연구결과

### 1) 세 형태의 행위자 유형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폭력의 형태, 반사회성, 경계선성, 의존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제시하는 특성을 지닌 세 하위유형이 도출되었다.

<표 2> 세 행위자 유형의 대표적 특성

변 인	유형 1 n=58(26.7%)	유형 2 n=87(40.1%)	유형 3 n=72(33.2%)	F-test
	M(SD)	M(SD)	M(SD)	
신체적 폭력 <sub>a</sub>	5.07(3.49)	8.16(6.91)	9.44(8.99)	6.45**
심리적 폭력 <sub>a</sub>	5.01(3.31)	9.87(7.02)	11.01(8.21)	14.20***
반사회성	18.19(10.48)	35.62(20.51)	42.50(22.60)	26.93***
경계선성	21.55(14.29)	63.60(16.72)	57.29(27.58)	79.75***
의존성	46.52(19.54)	74.00(13.95)	62.71(19.33)	43.26***
[폭력행사 범위]	n(%)	n(%)	n(%)	( $\chi^2$ )
아내에게만 폭력 행사	58(100)	87(100)	1(1.4)	212.52***
일반적으로 폭력 행사	0(0)	0(0)	71(98.6)	

<sub>a</sub>= adjusted, \*\* = < .01, \*\*\* = < .001

첫 번째 유형은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의 수준이 가장 낮은 행위자 집단으로 표본의 26.7%(n=58)를 차지한다. 이들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반사회적 성향, 경계선적 성향, 의존적 성향이 가장 낮다. 두 번째 유형은 경계선성, 의존성 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폭력의 정도와 반사회성은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장 높은 비율인 40.1%(n=87) 남성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유형1과 마찬가지로 폭력의 대상은 아내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며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들 거의 대부분(99%)은 아내 뿐 아니라 일반적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행위자들은 72명(33.2%)이며, 경계선적 특질과 의존성에 있어서는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구성원의 수를 살펴보면, 폭력 수준이 경미한 유형1의 규모가 가장 작고, 유형2 규모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선행연구들(e.g., Gondolf, 1988; Saunders, 1992)에서는 대체로 유형1과 같은 경미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표본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자의 성격(i.e., 법적 처벌을 받은 남성들 vs. 사법부에 연루되지 않은 지역사회 남성들)에서 찾을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외국의 경우와 다른 한국 행위자들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외국연구들이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행위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e.g., Saunders, 1992, Tweed and Dutton, 1998), 사법부에 연루되지 않은 지역사회 표본을 포함할 경우 오히려 유형1의 수는 늘어나고 유형2/유형3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법기관에 접촉하는 한국 행위자들 중 유형2와 유형3 타입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위자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위의 결과는 Holtzworth-Munroe와 Stuart가 제안한 세 행위자 유형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론에서 분류한대로 유형1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유형2는 “경계선적 집단”, 유형3은 “보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반사회적 집단”의 특성을 보인다. 요약하면, 유형1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폭력의 정도가 낮고 정신병리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형2는 아내에게만 폭력을 사용하고, 의존성이 강하며 경계선적 성향을 나타낸다. 유형3은 아내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폭력을 사용하며, 폭력의 수준이 가장 높고,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

## 2) 전체표본과 세 하위유형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분석결과를 하위유형별로 정리한 도표이다.

<표 3> 세 행위자 유형의 일반적 특성

변인	유형 1 n=58	유형 2 n=87	유형 3 n=72	전체표본 n=217
	M(SD)	M(SD)	M(SD)	M(SD)
연령	44.07(10.14)	43.50(7.96)	42.70(7.15)	43.39(8.34)
학력	11.42(4.03)	11.00(3.51)	10.54(3.19)	10.96(3.56)
월수입	176.67(122.20)	185.07(118.33)	191.71(119.52)	185.12(119.30)
결혼기간	183.16(125.66)	161.48(105.58)	168.49(109.70)	169.66(112.46)
배우자 연령	41.18(8.88)	40.99(7.56)	40.18(8.08)	40.77(8.07)
배우자 학력	12.11(3.76)	10.44(3.41)	10.17(3.18)	10.78(3.51)
신고 횟수	1.42(0.76)	1.37(0.77)	1.60(0.83)	1.46(0.79)
고소 횟수	1.27(0.63)	1.23(0.58)	1.35(0.58)	1.28(0.59)
	%	%	%	%
비정규 고용	37.2	39.7	40.7	39.7
상담경험 있음	8.6	17.6	11.4	13.1

전체표본의 평균 연령은 43세이며, 평균 학력은 고1 수준, 평균 수입은 월 185만원, 평균 결혼기간은 14년 2개월이다. 세 집단은 연령( $F = .44, p = .647$ ), 학력( $F = .98, p = .376$ ), 수입( $F = .23, p = .797$ ), 결혼기간( $F = .64, p = .531$ )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 곧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행위자 유형을 구분하는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폭력의 피해자인 배우자의 기본 특성을 조사하였다. 배우자 평균 연령은 40-41세 정도로

세 유형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F=.29, p=.746$ ). 배우자들의 평균 학력은 고1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행위자들보다 조금 낮은 편이나, 유형1의 경우 행위자에 비해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학력은 <표 3>의 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F=5.78, p=.004$ ).

경찰에 신고당하거나 고소당한 횟수를 살펴보면, 신고횟수는 평균적으로 1.5회( $F=1.21, p=.301$ ), 고소횟수( $F=.46, p=.630$ )는 1.3회 정도이다. 유형2는 유형1에 비해 폭력의 강도가 높음에도 신고 및 고소의 횟수는 더 적었다. 고용형태를 보면, 시간제 또는 일용직 상태의 비정규 고용이 전체조사 대상자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chi^2=.13, p=.937$ ), 폭력 수준이 높은 유형3이 비정규 고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금까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13.1%가 한 번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유형2가 17.6%로 가장 많았다( $\chi^2=2.73, p=.255$ ).

### 3) 외적변인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비교

세 하위유형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근거리 및 원거리 변수를 중심으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외적변인들에 따른 각 유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형1 행위자들은 우울 수준이 낮고, 질투심이 적으며, 알코올에 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제력과 자존감이 높고, 문제해결기술과 자기주장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관계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나아가 성역할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변인들과 관련해서 유형1과 대조를 보이는 집단은 유형3이다. 유형3 행위자들은 질투심이 강하며, 우울 수준과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통제력이 낮고 문제해결기술과 주장기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역할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며, 아내에게 사용하는 폭력을 높은 수준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이들 외적변수들에 대해 유형2 행위자들은 유형1과 유형3의 중간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질투심, 성역할 태도,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는 유형3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한다. 애착, 충동성, 태도 요인들에 비해, 세 집단은 사회기술 측면에서 차이가 비교적 적었다. 특히 주장기술은 유형2 남성들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유형들 차이는 유의수준 9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참조: <표 4>).

다음으로 MCMI 변수들을 살펴보면, 유형2 집단이 공격성을 제외한 분열성, 회피성, 수동공격성, 편집성, 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공격성은 폭력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3이 가장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특성들은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지닌다.

&lt;표 4&gt; 외적변인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비교

변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ANOVA
	n=58	n=87	n=72	
	M(SD)	M(SD)	M(SD)	F
우울 <sub>a</sub>	12.57(3.15)	15.13(3.42)	16.21(3.67)	18.47***
통제력 <sub>a</sub>	26.72(4.62)	24.39(5.19)	21.37(5.04)	18.69***
질투심 <sub>a</sub>	14.12(5.27)	17.45(7.21)	17.94(5.29)	7.17**
자존감 <sub>a</sub>	29.06(3.63)	26.87(3.15)	26.42(3.43)	11.07***
알코올 의존도 <sub>a</sub>	1.27(1.71)	1.61(1.94)	2.65(1.98)	9.64***
성역할 태도 <sub>a</sub>	17.91(5.15)	20.11(4.55)	20.71(3.95)	6.61**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 <sub>a</sub>	59.19(10.72)	53.54(10.23)	52.43(10.36)	7.64**
문제해결기술 <sub>a</sub>	21.80(3.25)	20.79(3.66)	19.92(3.28)	4.77**
주장기술 <sub>a</sub>	39.11(6.59)	35.47(5.70)	36.70(5.36)	6.73**
부부관계 만족도 <sub>a</sub>	34.37(8.46)	28.83(8.11)	28.44(8.72)	9.84***
아동기 학대경험 <sub>a</sub>	.49(0.62)	.80(1.55)	1.08(1.35)	3.29*
MCMJ				
분열성(schizoid)	42.21(21.77)	58.49(21.24)	50.46(23.75)	9.45***
회피성(avoidant)	41.19(19.06)	61.77(23.83)	51.43(24.31)	14.35***
1				
공격성(aggressive)	25.95(16.59)	49.86(17.97)	50.19(22.30)	33.43***
수동공격성 (passive-aggressive)	21.67(14.42)	56.51(21.17)	52.13(28.06)	46.93***
편집성(paranoid)	26.90(22.56)	51.52(19.51)	46.49(23.95)	23.00***
불안(anxiety)	30.33(29.64)	70.61(27.75)	65.10(36.19)	31.63***
외상장애 (post-traumatic disorder)	12.62(17.90)	44.00(26.12)	43.38(28.92)	32.26***

<sub>a</sub> = adjusted, \* = < .05, \*\* = < .01, \*\*\* = < .001

이어서 본 연구는 세 하위유형의 다중비교를 위해 Post Hoc Games-Howell Test를 실행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유형1과 유형2, 유형1과 유형3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폭력의 강도가 가장 낮은 유형1과 가장 높은 유형3은 주장기술과 분열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수준 99%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장기술의 경우, 유형2 집단이 가장 낮고 유형1과 유형3 차이는  $p < .009$ 를 기록한다. 분열성 성향에 있어서, 유형1과 유형3의 평균차이는  $-8.25(p = .102)$ 로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유형1과 유형2 비교에서도 거의 대부분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알코올 의존도( $p = .530$ ), 문제해결기술( $p = .192$ ), 아동기 학대경험( $p = .223$ )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유형1과 유형2의 알코올 의존도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되는 바이다. 한편, 아동기 학대경험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외상장애에서



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주의 깊은 해석을 요한다. 유형1과 유형2, 유형1과 유형3 비교를 요약하면, 군집변인들과 우울, 부부만족도, MCMI 변수들이 유형을 차별화하는 주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표 5> 세 하위유형의 다중비교

변인	유형1 vs. 유형2	유형1 vs. 유형3	유형2 vs. 유형3
	MD(SE)	MD(SE)	MD(SE)
신체적 폭력 <sub>a</sub>	-3.09(0.87)**	-4.36(1.15)**	-1.28(1.29)
심리적 폭력 <sub>a</sub>	-4.86(0.87)***	-6.00(1.06)***	-1.14(1.23)
반사회적 성향	-17.43(2.59)***	-24.31(3.00)***	-6.88(3.45)
경계선적 성향	-42.05(2.60)***	-35.74(3.75)***	6.31(3.710)
의존적 성향	-27.48(2.97)***	-16.19(3.43)***	11.29(2.72)***
우울 <sub>a</sub>	-2.56(0.56)***	-3.63(0.60)***	-1.07(0.57)
통제력 <sub>a</sub>	2.33(0.83)*	5.35(0.85)***	3.02(0.82)**
질투심 <sub>a</sub>	-3.33(1.05)**	-3.82(0.94)***	-0.48(1.00)
자존감 <sub>a</sub>	2.20(0.58)**	2.64(0.62)***	0.44(0.53)
알코올 의존도 <sub>a</sub>	-0.33(0.31)	-1.38(0.33)***	-1.04(0.32)**
성역할 태도 <sub>a</sub>	-2.19(0.83)*	-2.79(0.82)**	-0.60(0.67)
아내폭력에 대한 태도 <sub>a</sub>	5.64(1.78)**	6.76(1.86)**	1.11(1.64)
문제해결기술 <sub>a</sub>	1.01(0.58)	1.87(0.58)**	0.86(0.55)
주장기술 <sub>a</sub>	3.63(1.06)**	2.41(1.07)	-1.23(0.88)
부부관계 만족도 <sub>a</sub>	5.55(1.41)***	5.93(1.52)***	0.38(1.35)
아동기 학대경험 <sub>a</sub>	-0.31(0.19)	-0.59(0.18)**	-0.28(0.23)
• MCMI			
분열성(schizoid)	-16.29(3.65)***	-8.25(4.00)	8.04(3.61)
회피성(avoidant)	-20.58(3.58)***	-10.24(3.80)*	10.34(3.84)*
공격성(aggressive)	-23.91(2.91)***	-24.25(3.41)***	-0.33(3.26)
수동공격성 (passive-aggressive)	-34.83(2.96)***	-30.45(3.81)***	3.48(4.01)
편집성(paranoid)	-24.62(3.64)***	-19.59(4.09)***	5.03(3.53)
불안(anxiety)	-40.28(4.90)***	-34.77(5.77)***	5.51(5.20)
외상장애 (post-traumatic disorder)	-31.38(3.66)***	-30.75(4.14)***	0.63(4.41)

<sub>a</sub>= adjusted, MD = mean difference

앞의 결과들과 달리, 유형2와 유형3은 대부분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두 집단이 상대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경계선적 특성을 보이는 유형2는 유형3에 비해 의존성(평균차이=11.29,  $p = .000$ )과 회피성(평균차이=10.34,  $p = .021$ )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사회적 성격이 강한 유형3은 유형2보다 통제력(평균차이=3.02,  $p = .001$ )이 낮고 알코올 의존도(평균차이=-1.04,  $p = .003$ )가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217명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계층적 군집분석과 Two-step 분석결과에 따르면, Holtzworth-Munroe와 Stuart(1994)의 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은 타당성이 있으며, 한국 행위자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 유형에 대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분류 유형 중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 수준은 가장 낮으며, 폭력의 대상은 아내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유형1 행위자들은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고, 알코올에 덜 의존하는 생활 패턴을 보였다. 성격기질 측면에서도 특징이 적은 편이며, 모든 MCMI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두 유형들에 비해, 우울과 질투 수준이 낮으며, 통제력과 자존감은 높은 편이다. 비교적 양호한 사회기술과 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도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경계선적 집단”과 비슷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며 이러한 폭력은 아내에게만 행해지고 있었다. 유형2 가해남성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선성, 의존성, 회피성, 수동공격성, 외상장애, 분열성, 편집성 등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을 띠고 있다. 비록 병리적 장애에 속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들의 복잡한 기질과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보다 심리내적인 상담을 필요로 한다. 알코올 의존도는 유형1과 비슷한 수준이나 질투심, 자존감, 태도 변인들은 유형3과 근사한 값을 갖고 있다. 유형2는 특히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 불만족을 많이 표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분류 중 “보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반사회적 집단”에 해당한다. 유형3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강도가 가장 높고 아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장 많고, 알코올 남용이 심하며, 통제력과 자존감이 낮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면서 폭력 사용의 허용도가 높아서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유형별 특성은 Holtzworth-Munroe와 Stuart가 원거리 및 근거리 변수를 기초로 형성한 가설들을 대부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형2의 알코올 남용 수준이 생각보다 낮고, 경계선적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만큼 아동기 학대경험이 특별하지는 않다. 후자의 경우, 이 연구가 부모에게 당한 신체적 폭력만을 조사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원가족 경험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론에 비해 본 자료의 유형2와 유형3은 서로의 구분이 덜 명확한 편이다. 의존성이나 통제력과 같은 몇몇 변수들을 제외하면 두 집단은 비슷한 측면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일반적인지 우리만의 특성인지는 국내외 후속연구들에 의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유형3이 지배형 또는 도구형 집단의 속성을 더 가지며, 유형2는 충동성 집단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른 점은 표본 전체의 % 이상이 유형2와 유형3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유형1이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집단이라면, 한국에서는 유형2와 유형3이 그에 해당한다. 물론 이 연구가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행위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행위자들이 사법부에 의해 의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각 유형에 대해 Holzworth-Munroe와 Stuart가 사용한 명칭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유형1과 유형2 모두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폭력 대상 범위와 관련된 호칭은 적합하지 않다. 성격특질에 속한 명칭은 유형별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행위자들을 정신병리적인 집단으로 취급할 우려가 높은 단점이 있다. 조사대상자의 MCMI 수치는 이들이 병리적 수준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유형1은 “폭력성이 낮은 집단”, 유형2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존성이 강한 집단”, 유형3은 “반사회적이며 폭력성이 높은 집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결과는 행위자 유형에 따라 다른 상담 접근법을 제안한다. Dutton 등의 연구(1997)에 의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행위자프로그램은 경제선성, 회피성이 높은 내담자에게 덜 효과적이라고 한다. 한편 Saunders(1996)는 반사회적 성향의 행위자들에게는 인지행동/여성주의 모델이 효과적이며, 의존적인 행위자들에게는 과정/정신역동적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행위자 유형과 개입모형을 비교한 효과성 연구가 드물어서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제안하기는 어렵다. 또한 행위자 유형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 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실천지식도 불충분하다. 그러나 행위자 유형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볼 때, 피상적이거나 몇 가지 개입전략을 구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유형1 행위자들에게는 현재 한국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는 인지행동/여성주의 모델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태도, 기질, 행동, 배경적 요인들에 비하면, 유형1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두 집단들과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폭력행동은 특히 감정표현이나 대인관계기술의 부족과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유형1에게는 인지행동 모델에서 주장하는 비폭력적인 기술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감정표현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출하고, 관계갈등을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문제해결기술들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유형2 행위자들에게는 사회학습 모델 뿐 아니라 과거의 체험에서 비롯된 성격구조 문제도 현재의 폭력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접근방식이 유용할 듯 하다.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들에서 등한시했던 성격과 발달상의 문제도 고려하고, 과거의 고통과 상실을 극복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으로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주장기술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건전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억제된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다. 유형2 행위자들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자프로그램의 기본적 내용과 더불어 성격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입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3 행위자들에게는 기존의 인지행동/여성주의 모델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보다 강조하는 상담유형이 적합할 것 같다. 행위자들의 성차별적인 편견을 수정하도록 인지재구조화와 의식향상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사고에 직면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 관계갈등에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용적인 태도를 바꾸고, 분노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하며, 통제력을 높이는 상담기법들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겠다. 유형3과 같이 알코올 의존도가 매우 높은 행위자들은 별도로 알코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행위자프로그램에서 알코올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유형3의 빈번하고 심각한 폭력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상담개입이 요구되며, 이는 사법부의 철저한 감독과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연구는 보호처분을 받은 많은 한국의 행위자들이 유형2와 유형3에 속함을 발견하였다. 이 유형들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아내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는 공통적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폭력을 허용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개입모델에 상관없이, 한국 행위자프로그램에서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불평등적 인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전환시키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겠다.

행위자 유형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사법부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표준화된 유형분류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들의 재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후속연구는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들 뿐 아니라 사회의 공식적 기관에 노출되지 않은 행위자들도 포함시켜 연구결과의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하겠다. 또한 통제집단을 두어 각 행위자 유형들이 비폭력 집단과 어떤 변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행위자 유형을 구분했을 뿐 유형에 따른 폭력발생의 원인과 발달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장기적 연구 등을 통해 하위유형별 발달경로를 달리 살펴본다면 가정폭력 이론의 발전에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열. 1998. “한국가정폭력의 실태와 사회계층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 135-155.
- 윤경자·최규련. 1999. 『부부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
- 장희숙·정정호·김예성·변현주. 2003.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 행위자 특성 및 유형 연구』. 여성부 연구보고서.
- Beck, Aaron T. 1978. *Depression :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aesar, P. Lynn. 1986. “Men who Batter: A Heterogeneous Group”. in *The Male Batterer: Characteristics of a Heterogeneous Population* by L. K. Hamberger(Chair) Symposium conducted at the 9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Dilalla, L. F. and Irving I. Gottesman. 1989. “Heterogeneity of causes for delinquency and criminality: Lifespan perspectiv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 339-349.
- Dutton, Donald G., M. Bodnarchuk, Philip R. Kropp, Stephen D. Hart and J. P. Oglloff. 1997. “Client

- personality disorders affecting wife assault post-treatment recidivism". *Violence and Victims* 12: 37-50.
- Elbow, M. 1977.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Violent Marriages". *Social Casework* 58: 515-526.
- Faulk, M. 1974. "Man who Assault Their Wives".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180-183.
- Gelles, Richard J. 1985.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ray, J. A., S. Owen, Nancy Davis, and E. Tsaltas. 1983.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relations between anxiety and impulsivity". pp. 181-217. in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edited by M. Zuckerman. Hillsdale, NJ: Erlbaum.
- Goldstein, D., and Alan Rosenbaum. 1985. "An Evaluation of the Self-esteem of Maritally Violent Men". *Family Relations* 34.
- Gondolf, Edward W. 1985. *Men who Batter*. FL: Learning Publications.
- Gondolf, Edward W. 1988. "Who are These Guys? Toward a Behavioral Typology of Batterers". *Violence and Victims* 3: 187-203.
- Greenwald, H. J. and Yoichi Satow. 1970. "A Short Social Desirabilit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27: 131-135.
- Hamberger, L. Kevin and James E. Hastings. 1986. "Personality Correlates of Men who Abuse Their Partners: A Cross-validation Study". *Violence and Victims* 1(4): 323-341.
- Hamberger, L. Kevin and James E. Hastings. 1988. "Characteristics of Male Spouse Abusers: Consistent With Personality Disorder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9(7): 763-770.
- Hamberger, L. Kevin, Jaffrey M. Lohr, D. Bonge, and D. F. Tolin. 1996. "A sample empirical typology of male spouse abusers and its relationship with dimensions of abuse". *Violence and Victims* 11: 277-292.
- Hershorn, M. and Alan Rosenbaum. 1991. "Over- vs. undercontrolled hostility : Application of the construct to the classification of maritally 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6: 151-158.
- Heppner, P. P. and Chris H. Petersen.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Holtzworth-Munroe, A. and Gregory L. Stuart. 1994.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Subtype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76-497.
- Hotaling, Gerald T. and David B. Sugarman.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2): 101-124.
- Jacobson, N. S. and John M. Gottman. 1998. *When men batter wom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Maiuro, R. D., Cahn, T. S., and Vitaliano, P. P. 1986. "Assertiveness Deficits and Hostility in Domestically 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1(4): 279-289.
- Maiuro, R. D., Timothy S. Cahn, Peter P. Vitaliano, Barbara C. Wagner, and Joan B. Zegree. 1988. "Anger, Hostility, and Depression in Domestically Violent versus Generally Assaultive Men and Nonviolent Control Subj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1): 17-23.
- Margolin, G., R. S. Burman, and Richard S. John. 1989. "Home Observations of Married Couples Reenacting Naturalistic Conflicts". *Behavioral Assessment* 11: 101-118.
- Martin, G. L. 1986.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4. Resource for Christian Counseling

Series.

- Millon, T. 1983.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inneapolis: National Computer.
- Osmond, M. W. and P. Y. Martin.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Pokorny, A. D., Brenda A. Miller and Borman H. Kaplan. 1972. "The Brief MAST: A Shortened Version of the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9(3): 342-345.
- Rathus, S. A. 1973. "A 30-item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4: 398-406.
- Roach, A. J., L. P. Frazier, and S. R. Bowden.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 130-14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unders, Daniel G. 1984. "Helping Husbands Who Batter". *Social Casework* 65(6): 347-353.
- Saunders, Daniel G. 1991. "Procedures for Removing Social Desirability Bias from Self-Reports of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3): 337-345.
- Saunders, Daniel G. 1992. "A Typology of Men Who Batter Women: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 264-275.
- Saunders, Daniel G. 1996. "Feminist-cognitive-behavioral and process of psychodynamic treatments for men who batter: Interactions of abuse traits and treatment model". *Violence and Victims* 4: 393-414.
- Saunders, Daniel G., A. B. Lynch, Martin Grayson and Daniel Linz. 1987. "The 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 Th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of Beliefs and Attitudes". *Violence and Victims* 2(1): 39-57.
- Selzer, M. L. 1971. "The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The Quest for a New Diagnostic Instru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 1653-1658.
- Shields, N. M., George J. McCall, and C. R. Hanneke. 1988. "Patterns of family and nonfamily violence: Violent husbands and 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3: 83-97.
- Straus, Murray A. and Richard J. Gelles. 1990. "How Violent are American Families? Estimates from the National Family Violence Resurvey and Other studies". pp. 95-112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edited by M. A. Straus and R. J. Gell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Tolman, Richard M. and Larry W. Bennett. 1990.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87-118.
- Tweed, R. and Donald G. Dutton. 1998. "A comparison of impulsive and instrumental subgroups of batterers". *Violence and Victims* 13: 217-249.
- Walker, Lenore E. 1981.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and Row.
- White, G. L. 1977. "The Social Psychology of Romantic Jealous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10): 5449-5476.

## A Typology of Maritally Violent Men: Testing the Three Batterer Subtypes Derived from Theory

Chang, Hee-Suk  
(SungKongHoe University)

Kim, Ye-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subtypes of men who batter, and explored the differences among them. It was based on 217 subjects from all around the nation who received legal punishment. In the analysis of the typology, we specifically tested whether the Holtzworth-Munroe and Stuart proposed typology was verified. The results of the cluster analysis revealed support for their theoretical distinction for three types of abusers. These results imply that Holtzworth-Munroe and Stuart's batterer typology is applicable to Korean batterers to some degree.

Type 1 men demonstrated the lowest level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toward their wives and were the least likely to have had a history of child abuse or alcohol problems. These men had lower MCMI scores and did not show any extraordinary personality traits. Men in this category were violent only against their wives, had relatively liberal sex role attitudes and had the most satisfaction in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ype 2 men were violent only at home, using a moderate level of violence. These men had very high levels of dependency on others and showed a borderline, avoidant or 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The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was similar to Type 1, but scores of jealousy, self-esteem, and attitudinal variables were similar to Type 3 men. They lacked assertiveness skills and reported the least marital satisfaction. Type 3 men used the most severe violence and were violent both inside and outside the home. These men showed signs of antisocial and aggressive personality. They had experienced frequent physical abuse during childhood, were the most likely to abuse alcohol and had lower self-control. Type 3 were the most traditional in their views of women's roles and had attitudes supporting violence. Based upon the study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of enhancing treatment efficacy were considered.

Key words: family violence, batterers, typology, cluster analysis

[접수일 2004. 6. 17. 게재확정일 2004. 7. 20.]